

진정한 배움의 터 - 인성

동창회장 조 성 훈

한해 동안에 우리가 뿌려놓았던 말과 행위의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마감했는가를 채 살피기도 전에 어느덧 계절은 우리를 매서운 추위 속으로 내몰아 놓았습니다. 언제나 지나간 시절에 대한 후회와 연민은 버릇처럼 남는 것이지만 인간이 뒤돌아 볼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는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학교의 특수성과 지리적 위치 등의 환경 탓으로 많은 불편과 손해를 보아 오면서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한 우리 인성이 올해로 서른 다섯 번째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숱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 동문들과 선생님들의 땀과 기도의 보람으로 우리 인성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제는 식구도 꽤 늘어서 몇 년 전만해도 넉넉했던 교회의 본당이 이젠 비좁음을 느낄 정도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그 말씀을 양식삼는 우리 학교, 물론 우리 학교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이 학교에 발을 내딛는 모든 이에게 처음부터 잘 맞았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얼마간을 자신의 그동안의 삶의 방식과 학교의 방침이 상충하여 고민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것만을 볼 줄 알았던 이기심이 나보다 못한 이, 나와 다른 이조차 아무런 미움이나 선입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음도 아울러 느꼈을 줄 압니다. 거창하게 '사랑'이니 '신앙심의 발로'니 하는 말로 나타내지 않아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 자리를 잡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우리네 사람들의 의식보다 앞서 성큼성큼 앞으로만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같은 분위기, 같은 학교의 교훈 아래서 공부했고, 이곳을 거쳐간 나이지만 지금의 여러 후배들을 보고 있는 내 눈도 때때로 시대적 조류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대적 조류나 신사상에 민감하고 편리함을 제일로 여기는 전형적인 현대 여성(?)으로 커나갈 지금의 후배들의 모습이 때때로 충격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발전상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입맛 당기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로 인한 지나친 편리의 추구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 나보다 못한 이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정신의 소중함을 고루한 것으로 여기기 쉬운 것으로 우리의 성향을 변질시켜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30여년 전에 다녔던 인성은 다른 학교만큼 큰 건물과 낭만적인 캠퍼스를 지니진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훈훈한 분위기의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함께 나눌 줄 알았던 기억을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우리시대는 우리의 눈을 많이 흐려지게 하고 후배 여러분들도 자기 학교에 대하여 내 학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학교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성장 과정의 하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가슴 아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에 대한 주장이 철저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여성은 진정으로 살아 있는 여성이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여성에게 그 어떤 매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눈 앞의 일에만 열중하여 나날의 반성이나 순간 순간 진정한 애정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지 못하는 머리만 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혀 서로와는 무관한 삶을 살다가 ‘인성’이라는 한 사슬로 묶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닐 소중한 인연의 한 개입니다. 때로는 그 사슬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언뜻언뜻 우리를 엄습해 오는 진한 감동과 향수의 한 자락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성인 여러분!

이제 우리 인성은 불혹의 나이에 걸맞는 모습을 지니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

게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운동장 저편에는 교사 신축공사가 한참이고 여러 후배들은 각자의 목표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나만의, 우리만의 '인성'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인성'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진보만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성이 하나님보시기에 좋으실, 진정한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는 날은 바로 우리의 학교가 사랑과 긍지로 충만한 그 날입니다.

